



즉시 배포용: 2024년 12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주머니에 든 돈: **HOCHUL** 주지사, **2025년 1월 1일** 전국 최초 유급 산전휴가 시작일을 앞두고 유자격 뉴욕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 발표

Hochul 주지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임산부를 돕기 위해 미국 최초의 유급 산전 휴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주정부, 유급 산전 휴가 정책이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유자격 뉴욕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발표

뉴욕,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근로 가정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조치 시행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뉴욕주 최초의 유급 산전 휴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 전역에서 시작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2024년** 시정연설에서 제안되고 **4월**에 법제화된 이 국가 선도 정책은 근로자에게 임신 관련 의료 예약 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Hochul 주지사는 **18억** 달러의 보육 시설 투자, **23억** 달러의 재산세 감면, 획기적인 저렴한 주택 거래 중개 등을 통해 근로 가정이 뉴욕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어떤 임산부도 월급과 검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미국 최초의 유급 산전 휴가 정책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최저 임금 인상부터 저렴한 보육 시설 투자에 이르기까지 뉴욕을 가족을 부양하기에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서 주도하는 뉴욕주 전역의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은 뉴욕주의 획기적인 유급 산전 휴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캠페인은 지하철 광고 게시와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인식 제고 캠페인의 목표는 뉴욕 주민과 기업에 새로운 법에 대해 교육하고 뉴욕주의 임산부들에게 월급과 산전 관리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추가 캠페인 활동으로는 소셜 미디어 홍보, 전용 웹사이트, 뉴스레터, 뉴욕주 노동부 **Roberta Reardon** 커미셔와의 가상 미디어 투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내내 인지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뉴욕주 노동부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유급 산전 휴가를 통해 임산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근로자들도 돌보고 있습니다. 뉴욕주 가정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 기업에 고용된 임신한 뉴욕 주민은 이제 산전 관리를 위한 20시간의 유급 병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매년 약 13만 명의 임산부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약 65,800명이 시간제 근로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신 관련 건강 관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체 검사
- 의료 시술
- 모니터링
- 테스트
- 건강한 임신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논의 필요
- 불임 치료
- 임신 후 관리

유급 산전 휴가 수당은 뉴욕주 유급 가족 휴가(New York State Paid Family Leave), 기존 고용주 제공 휴가 및 기존 병가 수당에 추가되어 근로자가 고용이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건강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임신 관련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뉴욕주의 모든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최소 직원 한도는 없으며 풀타임 및 파트타임 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뉴욕주 보건부의 (New York State Health) James McDonal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확고한 의지는 임신 기간 내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임산부에게 임신 관련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면 태아의 건강,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가 없으면 많은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월급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뉴욕에서는 산전 관리를 받지 않았거나 임신 3기가 되어서야 산전 관리를 받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서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여성들이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산전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은 여성 중

거의 40%가 유급 휴가가 부족하거나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산전 건강 관리는 산모와 유아의 건강 결과 개선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정기적인 산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산부는 출산 중 사망할 가능성이 적고 신생아가 건강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산전 관리를 받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아에 비해 산모가 산전 관리를 받지 않은 영아는 저체중 출산 확률이 3배, 5.5파운드 미만, 영아 사망 확률이 5배 더 높았습니다. 또한 산전 관리를 받지 않은 여성은 관리를 받는 여성보다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3~4배 더 높습니다.

유색인종 임산부, 특히 흑인 여성은 전국적으로 임신 합병증과 산모 사망률이 불균형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임신 관련 사망자 중 흑인 여성의 비율이 높아 2018년 뉴욕 전체 출생의 14.3%를 차지했지만 산모 사망의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했습니다.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임신으로 사망할 확률이 5배 더 높고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도 더 높습니다. 자간전증 발병률은 백인 여성보다 흑인 여성의 경우 60% 더 높습니다.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 and Family Services)의 **DeMia Harris-Madde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법안은 모성 및 유아 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지사의 약속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유급 산전 의료 휴가를 도입하는 것은 공평한 인력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여성과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입니다. 임신 관련 사망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손실에 대한 벌금 없이 일관된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임신 및 출산 합병증 감소를 비롯한 긍정적인 건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Barbara C. Guin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새로운 유급 산전 휴가법은 뉴욕의 모든 임산부 근로자가 필수 임신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결과를 개선할 것입니다. 산모와 유아의 건강과 웰빙을 우선시하고 뉴욕주의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최초의 산모 주지사로서 Hochul 주지사는 산모 건강 관리 및 가족 지원에 대한 주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주지사는 산모 및 영아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유급 산전 휴가 외에도 주 노동력의 80% 이상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하고, Medicaid 및 Child Health Plus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산후조리 보장을 확대했으며, 주 전역에 걸쳐 돌라를 위한 Medicaid 보장을 신설하고, 주 최초의 돌라 디렉토리를 만들고, 주 필수 플랜 또는 적격 건강 플랜 가입자의 특정 임신 관련 혜택에 대해 비용 분담을 없애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욕의 공적 자금 지원 보육 시스템과 7월에 출시된 새로운 온라인 신청서는 뉴욕 가정이 보다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공평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보육 소득 한도를 연방 최대 한도로 인상하고, 가족의 본인 부담 보육 비용을 제한하고,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환급률을 인상함으로써 보육 지원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CCAP)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제정된 2024-25년도 주 예산은 [CCAP](#)에 대한 자금을 1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렸으며, 2023년에는 Hochul 주지사가 뉴욕주의 심각한 보육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 센터 건설을 위한 자본 보조금과 직장 기반 보육 시설 확장을 위한 사업세 공제를 총 1억 달러 약속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